

# '시민과의 약속 지키겠다'

### 전주시, 민선7기 공약자문평가단 위촉

전주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을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꼼꼼한 점검과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공약자문평가단을 위촉했다.

민선7기 김승수 시장이 제시한 공약사업은 경제·문화·도시·공동체·복지의 5개 분야 68개 공약, 76개 사업이다.

공약자문평가단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개모집한 일반시민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시는 20명의 공약자문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단을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참석한 공약자문평가단 위원들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성공적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단위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한 의



전주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을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꼼꼼한 점검과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공약자문평가단을 위촉했다.

견 제시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위원들은 공약사업 이행률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하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전주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은 '2018년 하반기는 사업시작단계로 대부분

의 사업들이 준비단계에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공약 자문평가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소통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 토요 생태교실 운영

전주자연생태관은 매주 토요일 어린이들이 역사와 환경의 소중함을 즐거운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토요 생태교실을 운영한다.

토요 생태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역사탐방 및 전주천과 승안산 주변에 대한 탐구활동 등 생활의 다양성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역사와 환경보존이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는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오는 9일에는 '행복을 담아보아요'를 주제로 한지를 이용해 복조리를 만들어 소원을 적고 기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자연생태관은 토요 생태교실과 별도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 어린이들이 더욱 깊이 있는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과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관 홈페이지(ecomuseum.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금융소외계층 자활 돕는 중'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채무조정 등 3462건 상담·52명 채무액 탕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과중한 채무와 경제적 궁핍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하고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채무조정과 채무상환 등 총 3,462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직접 채무조정을 통해 52명의 채무액 24억2100만원을 탕감해줬다.

또한, 지난 3년간 금융복지상담소는 모금된 후원금으로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통해 154명의 부채 23억2900만원을 소각한 바 있다.

상담소에는 현재 3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며, 상담사들은 △가계채무 관리상담(가계 수입과 지출균형, 교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관리 등)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상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서민금

융지원안내) △시민 금융복지 교육(재무관리, 올바른 소비습관 등)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사금융 예방상담(대부업체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 상담과 후원금 모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민원실에 위치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81-919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가계부채 등 채무상태 악화로 빈곤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주시는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해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 메모·텔레그램 '결정타'

### 경찰, 조재범 성폭행 혐의 입증

심석희(22)선수의 심경이 담긴 메모와 텔레그램이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시켰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7일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에 조 전 코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선수는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피해 당시 기록해 놓은 메모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심 선수 진술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 전

코치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태블릿 PC·외장하드 등을 복원해 조 전 코치와 심 선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과 지인과 동료 선수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복원된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8개월이 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강석훈 기자

## '어린학생 11명 상습 폭행'

### 어학연수 인솔교사 실형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가한 어린 학생 11명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모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에 간 학생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화장품 훔친 3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7일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A모씨(32)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6분경 군산 시내 한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2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그는 또 한 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이유는 '영어 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는다', '내 모자에 손댔다'는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하기 위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어학연수를 추진한 사단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석훈 기자

받고 있다.

그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훔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검거했다. A모씨는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 청년취업 프로젝트 2배로 확대

### 올해 모집인원 200명

전주시가 올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 프로젝트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취업 프로젝트' 제4기 참여자 7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취업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한겨워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내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단, △대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참가대상자는 서류심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모집인원이 지난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됐고 신청연령은 기존 만18~34세에서 만18~39세로 확대됐다.

또한,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종퇴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는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인한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동안 매일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원한다. /송효철 기자

### 전주슬로시티 공동체 모집

전주시가 슬로시티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주슬로시티 공동체'를 모집,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2019년도 슬로시티(서포터즈)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의 슬로시티 이념과 철학을 모든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는 4개 단체 내외를 선정해 각 5백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전주시 관광산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